

19세기 서울 지역의 생원과 진사*

— 구한말 호적을 중심으로 —

이정주**

〈차 례〉

1. 머리말
2. 구한말 호적과 생원·진사
3. 구한말 호적에 보이는 進士戶의 사회적 위상
4. 구한말 호적에 보이는 進士戶의 경제적 위상
5. 맺음말

[국문초록]

지금까지의 생원 진사 연구는 그들의 거주지·성관·전력·진로·가문적 배경 등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말의 호적을 통해 한성부의 생원·진사 계층을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구한말 호적에는 35,163인의 호주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다. 호적에 기재된 호주와 그들의 4祖의 직업란에 ‘생원’ 또는 ‘진사’로 기재된 경우는 401건이었으며, 전체 호주 가운데 진사 합격자는 53명으로 전체의 0.15%에 해당했다. 진사 합격자 중 한성부 거주자는 42명으로 전국 합산의 79%에 해당한다. 호적 자료상 인구의 1/3 정도 불과한 한성부에서 사마시 합격자의 80% 정도를 배출한 것이다.

호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4조까지 확장하면, 서울 가호의 2.78%가 가계 내에 사마시 합격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 평균 0.25%의 11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관직자 중 사마시 합격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성부 지역의 사마시 합격 비율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또 부친이 품관인 경우를 살펴본다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20.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면, 지방은 12.5%였고, 한성부 지역은 35.1%였다.

한성부의 진사시 합격자의 경제적 위상을 밝히기 위해 가족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한성부에서 진사 합격자는 평균 가족 규모가 15.3칸이었다. 그리고 한성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일반호 평균 가택 규모는 4.4칸이었다. 한성부 사마시 합격 가호가 대부분 瓦家에 거주하며, 한성부의 地價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성부의 사마시 입격호와 지방 거주 일반호의 경제력 차이는 더 벌어진다.

호적 내 사마시 입격자 가운데, 진사는 353인, 생원은 48인이었다. 고종대 생원 대비 진사의 배출 비율은 대략 1.5배 정도였다. 호적상 진사가 생원보다 7.4배가 많았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수치이다. 특히 호주의 직업으로 '生員'을 기재한 경우는 全無했다. 이는 조선 말 '生員' 합격자가 '進士'를 칭하는 관례 때문이었다.

[주제어] 生員, 進士, 司馬試, 生進試, 小科, 司馬榜目

1. 머리말

관료 중심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던 조선왕조에서 과거제는 중요한 지배층 배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제는 문과, 무과, 소과, 잡과가 있었지만, 유교적 소양을 중시하던 조선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문과와 소과였다. 문과는 관료 선발 시험이었고, 司馬試 또는 生進試라고도 불리었던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 시험이었다. 소과는 문과의 예비시험도 아니었고, 합격과 관직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었다. 생원, 진사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참봉 같은 하위직에 임명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성균관 입학 을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에 불과했음에도 소과=생진사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일례로 1891년 경상도에서 실시된 문과 초시에 불과 301명이 응시하여 30명의 입격자를 냈던데 반해, 경상좌도 진사와 생원 초시에는 각각 20,176명과 16,230명이 응시하여 25명의 입격자를 내었다.¹⁾ 진사 초시는 무려 807:1, 생원 초시의 경우도 649:1의 경쟁률이었다.²⁾ 이처럼 자격증

1)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의 경우 '合格'이라했고, 소과에 붙을 경우 '入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후 생원·진사의 경우 '입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김경용, 「조선조 과거제도 시행과정의 탐색」, 『교육사학연구』 25-1, 2015, 15~17쪽 참조.

을 얻기 위한 시험임에도 생원과 진사를 향한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앞서 살펴본 경상도의 사례가 특이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조선말까지 생원, 진사 시험의 경쟁률은 300~400:1에 이를 정도를 치열했다. 이는 생원과 진사 시험의 입격 자체가 개인의 영광은 물론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생원 진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조선 시대 사회의 주체였던 양반 사족들의 존재 양상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생원 진사 연구는 송준호가 개략적으로 대강을 검토한 바탕에서, 최진옥이 DB화한 『사마방목』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거주지·성관·전력·진로·가문적 배경 등을 밝혔다.³⁾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지역적 위상과 활동 상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⁴⁾ 하지만 현재까지도 생원, 진사 연구는 주로 『사마방목』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거나 향촌사회의 특정 사례 분석에 국한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말 한성부 지역의 가택과 가구원 분석을 통해 생원·진사층의 실재 존재 양상을 밝히려고 한다.

3) 송준호, 『李朝 生員·進士試의 研究』, 국회도서관, 1970; 최진옥,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집문당, 1998.

4) 특정 지역 중심 생원, 진사의 검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경용, 『四學課試 출신자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분석-1846년 식년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28권 1호, 2018; 김경용, 『조선후기 경(京)·향(鄕) 유생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비교연구-1846년 식년감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1, 2018; 김의환, 『영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국학연구』 35, 2018; 김의환, 『충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조선시대사학보』 91, 2019; 柳浩錫, 『1931年刊『全州生進靑衿錄』分析』,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43, 2013; 박현순, 『17세기 과거(科擧) 관리의 정비-응시자 증가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사학보』 49, 조선시대사학회, 2009; 원영환, 『朝鮮時代 生員進士와 春川社會의 特性』, 『강원문화사연구』 3, 1998; 원창애, 『지방 거주 생원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趙世煥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39, 2020; 이남희, 『조선시대 수원지역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연구』, 『역사와실학』 51, 2013; 이수환, 『조선 향촌사회 속의 생원·진사』, 『한국사 시민강좌』 46, 2010; 진덕순·이은주, 『조선시대 생원·진사의 방방 복식제도』, 『국학연구』 45, 2021; 최진옥, 『조선시대 평안도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2. 구한말 호적과 생원·진사

생원과 진사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사마방목』이다. 『사마방목』에는 生進試 입격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입격자의 성적, 前歷, 字, 생년, 본관, 거주지, 시험장소와 시험과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 부모와 조부모의 인적 사항과 생존 여부, 형제에 관한 사항, 嫡庶 여부 등도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사마방목』은 생원과 진사 입격자들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간의 연구는 『사마방목』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호적에는 『사마방목』에 없는 또 다른 정보가 담겨 있다. 호적에는 생신시 입격자들의 거주지 이동, 조부 이상의 상세 정보, 가족 구성원, 가택의 규모, 고용인과 의탁인의 숫자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었던 것이다.

호적에 가옥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고용인과 의탁인 등 경제적인 정보가 담기게 된 것은 1896년 이후의 일이었다. 1896년 조선정부는 이전의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호구조사규칙>과 그 후속 조치로 <호구조사세칙>을 공포하였다. 1896년 호적법의 특징은 이전의 職役에 대신해서 호주의 職業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호적 신고자들이 비록 이전의 직역과 구분하여 근대적 의미의 직업을 기재한 것은 아니었지만, 호적 신고 시 ‘직업’란을 설정했기 때문에 ‘진사’, ‘생원’ 등의 정보가 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갑오경장 이후 만들어진 호적에는 ‘가택’란을 설정하여 가택의 소유, 임대 여부와 가옥의 형태, 그리고 그 규모까지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호적을 통해 직업과 경제력을 부족하나마 결부시킬 수 있게 되었다.

1896년 이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호적은 그 수량이 많다. 1896~1908년에 작성된 호적에 관해서는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팀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되었는데, 그 분량이 방대하여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한 호적은 89종이며, 이 가운데 300호 이상의 호적을 대표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성부 호적: 光武10年漢城府北署順化坊戶籍(1,394호), 光武10年漢城府中署貞善坊戶籍(942호), 光武10年漢城府中署堅平坊戶籍(826호), 光武10年漢城府長通坊戶籍(810호), 光武7年漢城府南署薰陶坊戶籍(790호), 光武10年漢城府北署觀光坊戶籍(612호), 光武7年漢城府西署盤松坊戶籍(495호), 光武7年漢城府南署豆毛坊戶籍(444호), 光武10年漢城府中署寬仁坊戶籍(424호), 光武10年漢城府北署鎮長坊戶籍(400호), 光武10年漢城府北署嘉會坊戶籍(355호), 光武10年漢城府北署俊秀坊戶籍(327호)

- 한성부 이외 지역 호적: 光武7年6月邊界戶籍成冊(1,457호), 光武6年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1,347호), 光武6年壬寅12月邊界戶籍案845(845호), 光武7年癸卯正月邊界戶籍成冊793(793호), 光武9年黃海道甕津郡戶籍(789호), 光武9年全羅北道茂朱郡北豐西面戶籍(780호), 全羅南道光州郡庚子帳籍(727호), 光武9年平安北道慈城郡閭延面等戶籍(691호), 光武9年全羅北道扶安郡下西面戶籍(614호), 光武9年甲辰度龍仁郡戶籍大帳(606호), 光武4年慶尙北道義興郡身南面等戶籍(559호), 光武4年咸鏡北道武山郡邑面等戶籍(540호), 慶尙北道尙州郡乙巳戶籍表(514호), 建陽2年2月平安南道順川郡戶籍帳冊(503호), 光武8年忠清南道公州郡牛井面戶籍(497호), 光武4年全羅南道南平郡郡內面戶籍444(444호), 光武7年1月日楊州郡青松面戶口帳籍441(441호), 光武9年慶尙北道柴谷郡乙巳戶籍433(433호), 光武5年咸鏡北道鏡城郡朱南面戶籍432(432호), 光武11年江原道通川郡碧山面戶籍418(418호), 光武4年1月日開城府戶籍表(南部都助里)413(413호), 光武4年慶尙北道慶山郡北面戶籍403(403호), 北青郡辛丑年戶籍表十五(星垈面)403(403호), 光武8年1月日漣川郡北面癸卯戶口帳籍402(402호), 隆熙2年慶尙南道東萊府東下面戶籍392(392호), 光武3年平安北道定州郡海山面戶籍387(387호), 光武5年忠清南道藍浦郡習衣面戶籍382(382호), 光武9年江原道淮陽郡二東面戶籍378(378호), 光武5年全羅北道全州郡伊南面戶籍370(370호), 光武9年黃海道黃州郡戶籍370(370호), 光武2年平安北道龜城州郡五峰面戶籍347(347호), 光武9年甲辰度龍仁郡戶籍大帳(枝內面)344(344호), 光武5年1月黃海道海州郡東大面戶籍305(305호)

검토 대상으로 삼은 호적에는 35,166명의 호주와 100,512명의 동거인, 도합 135,678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검토 지역은 한성부와 전국 12개 도의 44개 군이었다. 검토 대상 지역을 호적 자료 건수 순으로 매김하면, 漢城府(12,424건:35.3%), 京畿道(3,860건:11%), 平安北道(3,251건:9.2%), 변계(3,095건:8.8%), 慶尙北道(2,067건:5.9%), 全羅北道(2,004건:5.7%), 黃海道(1,989건:5.7%) 등의 순서였다.

3. 구한말 호적에 보이는 進士戶의 사회적 위상

조선시대 일반적인 지방 군현에서는 대략 10년에 1인 정도의 비율로 생원, 진사시에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때문에 지방에서 생원과 진사는 매우 희소한 존재들이었다. 지방에서 생원과 진사는 지역 사회를 주도하는 명망가로 활약하였고, 당연히 그들의 사회적 위상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원, 진사 합격자의 1/3 이상을 점유하는 한성부의 경우는 어떠한을까. 그리고 생원, 진사 입격자들의 경제적 위상은 어떠한을까. 본고는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한성부 지역 호주와 그들의 4조 내의 생원, 진사 입격자 현황을 살피고 그들의 경제적 위치를 거론한 것이다.

1896~1908년 사이에 작성된 35,163건의 호적에 기재된 호주와 그들의 4조의 직업란에 ‘생원’ 또는 ‘진사’로 기재된 경우는 총 401건이었다. 호주 가운데 진사 입격자는 53명으로 0.15%에 해당했다. 진사 입격자 중 한성부 거주자는 42명으로 전국 합산의 79%에 해당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호적만을 살필 때, 인구의 1/3 정도 불과한 한성부에서 사마시 합격자의 80%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호적 기재의 특성상 최종 직업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데, 관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마시 합격자임을 감안하면 한성부의 실제 사마시 입격자 비율은 현저하게 상승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호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4조까지 확장하면, 서울 가호의 2.78%가 가계 내에 사마시 입격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 평균

0.25%의 11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관직자 중 사마시 입격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성부 지역의 사마시 입격 비율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1] 호적 내 생원, 진사 현황

지역	호주	진사					생원					합계	비율
		호주	부	조부	증조	외조	부	조부	증조	외조			
漢城府	12,422	42	55	58	71	78	9	14	9	9	345	2.78%	
京畿道	3,860	6	3	3	3	8	1	1	1	0	26	0.67%	
咸鏡北道	972	1	1	1	1	0	0	0	1	0	5	0.51%	
黃海道	1,989	1	2	0	1	0	0	0	0	1	5	0.25%	
全羅北道	2,004	1	2	2	0	0	0	0	0	0	5	0.25%	
년계	3,095	0	0	1	0	5	0	0	0	0	6	0.19%	
慶尙北道	2,067	0	0	1	1	0	0	1	1	0	4	0.19%	
慶尙南道	598	1	0	0	0	0	0	0	0	0	1	0.17%	
平安北道	3,251	1	1	0	1	1	0	0	0	0	4	0.12%	
江原道	978	0	0	0	0	0	0	0	0	0	0	0.00%	
全羅南道	1,527	0	0	0	0	0	0	0	0	0	0	0.00%	
忠淸南道	881	0	0	0	0	0	0	0	0	0	0	0.00%	
平安南道	1,116	0	0	0	0	0	0	0	0	0	0	0.00%	
咸鏡南道	403	0	0	0	0	0	0	0	0	0	0	0.00%	
전국	35,163	53	64	66	78	92	0	16	12	10	401	1.14%	

그러나 분석 대상 호적에 ‘進士’로 기재된 53인 전부를 실제 소과 입격자로 파악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현전하는 『司馬榜目』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입격 당시에 初名을 사용하다 후에 개명하였을 수도 있고, 남아있지 않은 『사마방목』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항 이후 격변기라서 소과 초시 입격자가 ‘進士’를 칭하거나 무입격자가 ‘進士’를 冒稱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비는 실제 생원·진사층의 양태이다. 때문

에 호적에 ‘진사’로 기재하였더라도 『사마방목』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 동명이인을 배제하기 위해, 4추가 일치하는 경우의 호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4추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사마방목』에 등재된 호주는 총 36인이었다.

[표2] 구한말 호적과 『사마방목』 속의 進士

번호	지명(道)	지명(府/郡)	지명(坊/面)	호적 작성 시기	성명	연령	출생 연도	입격 연도	입격 연령
1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	1900	邊宅鏞	62	1839	1888	50
2	慶尙南道	東萊府	東下面	1908	金雙元	66	1843	1880	38
3	漢城府	南署	大坪坊	1903	朴鍾培	37	1867	1885	19
4	漢城府	北署	觀光坊	1906	金溶直	65	1842	1891	50
5	漢城府	北署	嘉會坊	1903	金兌容	66	1838	1870	33
6	漢城府	北署	嘉會坊	1903	兪鎮德	47	1857	1885	29
7	漢城府	北署	嘉會坊	1903	李源禧	54	1850	1882	33
8	漢城府	北署	嘉會坊	1906	金兌容	69	1838	1870	33
9	漢城府	北署	嘉會坊	1906	李源禧	57	1850	1882	33
10	漢城府	中署	堅坪坊	1903	李時用	33	1871	1894	24
11	漢城府	北署	廣化坊	1903	朱恒善	33	1871	1888	18
12	漢城府	北署	廣化坊	1906	崔聖模	33	1874	1888	15
13	漢城府	南署	薰陶坊	1903	徐廷勳	30	1874	1891	18
14	漢城府	南署	薰陶坊	1903	李東雨	43	1861	1891	31
15	漢城府	南署	薰陶坊	1903	李種廉	33	1871	1891	21
16	漢城府	南署	薰陶坊	1903	李裕卿	56	1848	1888	41
17	漢城府	南署	薰陶坊	1903	林亨	40	1864	1894	31
18	漢城府	南署	薰陶坊	1903	趙昇載	36	1868	1891	24
19	漢城府	南署	會賢坊	1903	盧德愚	57	1847	1873	27
20	漢城府	南署	會賢坊	1903	李容萬	73	1831	1879	49
21	漢城府	南署	會賢坊	1903	李範隣	49	1855	1879	25
22	漢城府	南署	會賢坊	1903	鄭寅禧	38	1866	1882	17
23	漢城府	南署	會賢坊	1903	趙秉倫	42	1862	1891	30

24	漢城府	北署	鎭長坊	1906	成在奎	67	1840	1891	52
25	漢城府	北署	俊秀坊	1906	金龍秀	53	1854	1891	38
26	漢城府	中署	長通坊	1906	金榮寬	36	1871	1891	21
27	漢城府	中署	長通坊	1906	金鳳植	39	1868	1891	24
28	漢城府	中署	慶幸坊	1906	姜敷錫	38	1869	1894	26
29	京畿道	廣州府	北方面	1903	鄭完鎭	30	1874	1894	21
30	京畿道	廣州府	北方面	1903	洪淳定	55	1849	1888	40
31	京畿道	廣州府	北方面	1903	金容九	63	1841	1894	54
32	京畿道	廣州府	北方面	1903	金容大	35	1869	1885	17
33	平安北道	龜城郡	五峰面	1898	崔弘翊	36	1863	1894	32
34	咸鏡北道	鏡城郡	朱南面	1901	李秉善	54	1848	1885	38
35	漢城府	北署	順化坊	1906	趙秉圭	39	1868	1891	24
36	漢城府	北署	順化坊	1906	尹滋弼	51	1856	1894	39

호적에 나타난 호주들의 연령은 30~73세까지 다양했다. 거주지 별로 분류하면 한성부 28인, 경기도 4인과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각 1인이었다. 진사 입격자의 대다수가 한성부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적에 보이는 이들의 입격 연도는 1870~1894년이였다. 즉 진사 호주 모두가 고종대 입격하였던 것이다.

입격시 이들의 평균 연령은 31세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사마시 평균 입격 연령은 37.81세였으며, 후대로 갈수록 입격 연령이 높아졌다고 한다. 또 입격 연령은 거주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서울은 평균 31.2세이며, 大邑은 35.1세, 小邑은 35.7세로 지방 거주자의 합격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고 한다.⁵⁾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호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평균 입격 연령이 한성부가 29.5세인데 반해, 경기도 33세, 평안북도 32세, 경상남도 38세, 함경북도 38세, 황해도 50세였다. 지역에 따라 교육 여건의 현저한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5) 최진옥,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259쪽.

[표3] 구한말 호적에 보이는 進士戶의 4祖 직업

번호	성명	지명(道)	본관	父 직업	祖父 직업	曾祖 직업	外祖 직업
1	邊宅鏞	黃海道	原州		成均生員		
2	金夔元	慶尙南道	金海				
3	朴鍾培	漢城府	忠州				
4	金溶直	漢城府	金海				
5	金允容	漢城府	全州	學生	學生	學生	學生
6	俞鎭德	漢城府	杞溪	承旨	參判	參判	進士
7	李源禧	漢城府	龍仁	通訓大夫	嘉義大夫	通德郎	學生
8	金允容	漢城府	全州	學生	學生	學生	學生
9	李源禧	漢城府	龍仁	蔭主簿	同敦寧	參奉	學生
10	李時用	漢城府	全州	成均進士	成均進士	學生	進士
11	朱恒善	漢城府	綾城	學生	通政大夫	學生	學生
12	崔聖模	漢城府	全州				
13	徐廷勳	漢城府	大邱		承旨		府使
14	李東雨	漢城府	慶州	幼學	判書	郡守	進士
15	李種廉	漢城府	德水	郡守		都正	府使
16	李裕卿	漢城府	慶州				
17	林亨	漢城府	鎭川	進士	僉樞	學生	學生
18	趙昇載	漢城府	豐壤	郡守	承旨	判書	學生
19	盧德愚	漢城府	交河				
20	李容萬	漢城府	全州	通善郎	蔭縣監	蔭參奉	文正言
21	李範隣	漢城府	全州				
22	鄭寅禧	漢城府	東萊	通德	參判	判書	學生
23	趙秉倫	漢城府	豐壤	郡守	判書	贈判書	府使
24	成在奎	漢城府	昌寧	參奉	參判	郡守	學生
25	金龍秀	漢城府	延安	學生	學生	學生	
26	金榮寬	漢城府	金海	學生	學生	學生	學生
27	金鳳植	漢城府	高山				
28	姜敦錫	漢城府	衿川		監役		
29	鄭完鎭	京畿道	東萊				

30	洪淳定	京畿道	南陽				
31	金容九	京畿道	光山	縣監		郡守	
32	金容大	京畿道	光山				
33	崔弘翊	平安北道	海州		掌令	學生	學生
34	李秉善	咸鏡北道	公州		持平		
35	趙秉圭	漢城府	楊川	幼學	參奉	學生	正言
36	尹滋弼	漢城府	坡平	進士	承旨	通德郎	學生

위의 표는 進士 戶主의 4組 직업을 정리한 것이다. 구한말 지방 호적 가운데 상당수가 직업으로 ‘幼學’ 내지 ‘學生’을 관습적으로 적고 있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進士 戶主의 경우 관습적인 ‘幼學’, ‘學生’ 등의 신분 표기를 하지 않고, 조상이 품직자가 아니었을 경우 빈칸 상태로 비워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를 통해서도 한성부와 지방의 극명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일단 진사 입격자 父의 품계를 살펴보면, 지방은 진사 8명 중 진사 이상의 신분을 갖고 있던 조상이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한성부는 28호의 進士 戶 가운데 무려 12호가 진사이거나 品職者였다. 진사 이상의 비율로 볼 때, 지방은 12.5%, 한성부는 42.9%였던 것이다.

앞서 진사 호주 부친의 품계를 일례로 들었지만, 進士 戶와 일반호의 사회적 위상 차이는 매우 컸다. 36개의 진사호를 검토하면, 4조 가운데 判書 등의 2품관 7인, 承旨·參判 등 3품관 14인, 掌令·正言·郡守·縣監 등 4~6품관 18인, 監役·參奉 등 9품관이 5인, 진사 7인, 생원 1인이 주목된다. 판서, 승지, 참관, 장령, 정언 등의 중앙 부서 요직이나 군수, 현감 등 지방 수령에 이르기까지 실직을 역임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진사 호주의 4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戶 가운데 14戶의 호주는 4조 가운데 품직자나 생원, 진사가 전혀 없었다. 이들은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2戶는 품직이나 사마시 입격 이력을 지닌 조상을 두고 있었다. 즉 사마시 입격자의 60%가 유력 가문 출생이었던 것이다.

4조 가운데 ‘外祖’를 검토하면, 사마시 입격에 가문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마시 입격자의 조상 가운데 생원, 진사 이상의 이력을 가진 인물은 52인이었다. 이 가운데 외조는 8인이었다. 4조 52인 가운데, 외조가 8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마시 입격은 외가 보다 본가의 내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원, 진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문적 배경, 특히 외가 보다는 본가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進士戶 가운데는 가급적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4조 직업란에 ‘蔭都正’, ‘蔭縣監’, ‘蔭參奉’이라 하여 蔭職으로 벼슬을 하였으며, ‘文正言’이라 적어 문과에 급제하여 최종 관직이 사간원 正言이었음을 밝힌 호적이 있다.⁶⁾ 또 부친의 직함을 ‘蔭主簿’라 기재한 경우도 있다.⁷⁾ 蔭職으로 관직에 나아간 것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진사 입격자들은 조상의 이력에 대해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직업 기재에 있어 특이한 점은 ‘成均進士’, ‘成均生員’이라 기재한 경우이다. 호적 자료에는 ‘성균진사’ 2건, ‘성균생원’ 1건이 나타난다. 생원과 진사 입격자에게는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실제로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성균관 입학자는 그 경력을 과시하기 위해, 굳이 ‘성균진사’, ‘성균생원’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균진사’와 ‘성균생원’의 표기는 祖·父代에 나타나고, 호주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 사마시는 사실상 성균관 입학을 위한 시험이었다. 구한말 호적 호주들이 사마시에 합격한 1870년 이후에는 ‘성균’진사, ‘성균’생원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균관 입학은 생원, 진사에게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칭호의 변경으로 보아 적어도 1870년 이후에는 성균관이 부실하여져 입학자가 크게 줄어들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6) 「光武7年漢城府南署會賢坊戶籍」李容萬 호적. 이용만은 그의 외조를 ‘文正言’이라 표기하여, 문과 급제자임을 밝혔는데, 정원선의 문과 급제 기록은 『국조문과방목』에도 나타난다. 정원선은 정조 18년(1794) 庭試에 합격하였다.

7) 「光武10年漢城北署嘉會坊戶籍」李源禧 호적.

[표4] 고종대 생원·진사시 입격자 추이

연도	生員	進士	합계
1864	141	139	280
1865	150	148	298
1867	177	195	372
1870	121	140	261
1873	201	277	478
1874	148	126	274
1876	101	102	203
1879	100	104	204
1880	167	238	405
1882	245	331	576
1885	347	403	750
1888	214	323	537
1891	363	681	1,044
1894	278	1,054	1,332
합계	2,753	4,261	7,014

구한말 호적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생원’ 호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적게는 37명, 많게는 53명 전체가 직업란에 ‘진사’라 썼던 것이다. 위의 표는 고종대 사마시 입격자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종대에도 ‘생원’은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호적에는 ‘生員’ 입격자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사마방목』에서 구한말 호적에 나오는 호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다. 그 결과 호적 직업란에 ‘진사’라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生員試에 입격한 다음의 7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5] '진사' 칭호 사용 生員 입격자(전가: 『사마방목』)

번호	이름	입격시 거주지(도)	입격시 거주지(군현)	입격 연도	시종	과종	합격 순위
1	朴鍾培	황해도	金川	1885	式年	生員	3등 90
2	李時用	경상도	聞慶	1894	式年	生員	3등 190
3	朱恒善	함경도	咸興	1888	式年	生員	3등 80
4	徐廷勳	경기도	長湍	1891	增廣	生員	3등 205
5	李容萬	京	京	1873	式年	生員	3등 160
6	鄭寅羲	京	京	1879	式年	生員	3등 77
7	趙秉倫	京	京	1882	增廣	生員	3등 102

이들은 왜 '생원' 입격자이면서, '진사'라 칭했을까. 조선 후기 서울 거주자들은 생원보다 진사를 선호했고, 그 결과 서울 출신 진사시 합격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진사의 인기가 높아졌던 반면, '삼 년 고개에서 넘어진 김생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원은 점차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간 고지식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생원' 입격자들은 호적이나 공문서에 자신의 신분을 '진사'로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37인의 입격자 가운데, 생원은 7인에 불과했다. 이는 앞서 고종대 사마시 입격자 비교표에서 보았듯이 생원 대 진사의 비율이 4:6으로 진사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입격자 대부분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구한말 호적에 보이는 進士戶의 경제적 위상

조선은 국초부터 소과 응시자의 지역적 제한을 두었다. 생원·진사 시험은 初試와 覆試로 나누었는데, 초시의 경우 한성시는 200명, 향시는 경기도가 60명, 경상도 10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강원도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영안도 35명 등으로 생원·진사 모두 각각 700명을 뽑았

다. 북시의 경우 각각 100명을 뽑았는데, 북시에서는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⁸⁾ 북시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선발 인원에게 있어 지역별 격차가 컸다. 한성부의 경우 사마시 입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표6] 구한말 진사호의 거주지 이동 상황

번호	성명	생원·진사 입격 당시 거주지 (『사마방목』)		호적에 나타난 거주지 (『구한말호적』)	
		지역1	지역2	지역1	지역2
1	朴鍾培	황해도	金川	한성부	南署
2	金溶直	경상도	金海	한성부	北署
3	金兌容	강원도	楊口	한성부	北署
4	金兌容	강원도	楊口	한성부	北署
5	李時用	경상도	聞慶	한성부	中署
6	朱恒善	함경도	咸興	한성부	北署
7	徐廷勳	경기도	長湍	한성부	南署
8	李東雨	충청도	鎭川	한성부	南署
9	李種廉	경기도	砥平	한성부	南署
10	李裕卿	경상도	尙州	한성부	南署
11	林亨	강원도	春川	한성부	南署
12	成在奎	경기도	砥平	한성부	南署
13	金榮寬	경기도	龍仁	한성부	北署
14	金鳳植	충청도	洪州	한성부	中署
15	姜敦錫	경기도	始興	한성부	中署
16	鄭完鎭	경기도	廣州	한성부	中署
17	崔弘翊	평안도	泰川	경기도	廣州
18	李秉善	함경도	鏡城	평안북도	龜城
19	趙秉圭	충청도	槐山	함경북도	鏡城
20	尹滋弼	경기도	廣州	한성부	北署

8) 『經國大典』禮典 諸科.

위의 표는 조선말 생원·진사 입격자의 거주지 이동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사마방목』에 보이는 입격 당시의 거주지와 호적상의 거주지가 바뀐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사마방목』과 『구한말호적』의 교차 검증을 통해 신상 정보가 일치하는 35인의 진사 호주 가운데, 20명이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 이동 유형은 ‘지방→서울’이 17건이었고, ‘지방→지방’이 3건이었다. ‘서울→지방’은 1건도 없었다. 한성부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상의 한계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지 이동 상황이 3만 건이 넘는 호적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 나타난 일정한 경향성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분석 결과 조선말 사마시 입격자들은 입격 후에 많은 수가 上京하였고, 낙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양서 김생원택 찾기’라는 말도 있듯이 서울에서 생원, 진사는 매우 흔한 존재였다. 생원과 진사 등 상류층이 서울로 이동한 것은 자손의 교육이나 관직 획득, 그리고 사회적 신분 상승 측면에서 서울 거주가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조선말 서울 지역은 각종 시험에 불기에 유리했고, 또 지방의 합격자들이 이주해오는 곳이었다. 그 결과 조선말 서울과 지방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표7] 사마시 入格戶와 일반호의 평균 주택 규모

지역	진사 호	일반 호	규모 차이	경제력 비율
漢城府	15.3	11.7	3.6	1.3
京畿道	10.0	5.4	4.6	1.9
慶尙南道	7.0	3.3	3.7	2.1
全羅北道	5.0	3.4	1.6	1.5
平安北道	6.0	3.7	2.3	1.6
咸鏡北道	8.0	6.8	1.2	1.2
黃海道	19.0	5.1	13.9	3.7
전국	14.1	5.6	8.4	2.5

마지막으로 조선말 진사호의 경제적 위상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일단 진사호와 일반호의 주택 규모를 정리하였다. 고금을 막론하고 가옥의 규모는 경제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광무~융희 초년의 호적에는 주택 칸수가 기재되어 있어 사마시 入格戶의 상대적 경제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성부에서 진사 합격자는 평균 가옥 규모가 15.3칸이었다. 그리고 한성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일반호 평균 가택 규모는 4.4칸이었다. 단순 가옥 규모로 볼 때, 한성부의 사마시 입격호는 전국 평균보다 경제력이 3.5배에 달했다. 그렇지만 한성부 사마시 입격호가 대부분 瓦家에 거주하며, 한성부의 地價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성부의 사마시 입격호와 지방 거주 일반호의 경제력 차이는 더 벌어진다.

한성부의 사마시 입격호의 가택 규모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한성부의 여타 가호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미미한 편이었다. 한성부 일반 가호의 평균 주택 규모는 11.7칸으로 進士戶는 일반호에 비해 1.3배 정도 경제적 우위에 있었던 셈이다. 생원과 진사의 평균 주택 규모를 비교한다면, 生員戶는 13.6칸, 進士戶는 14.7칸이었다.

위의 표를 보면 사마시 입격호의 경제력은 지역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일반호와 상대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進士戶는 일반호에 비해 2~3배 정도 큰 가옥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으로 가옥의 규모를 통해 진사호의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가옥도 있었다. 『光武10年漢城府中署壽進坊戶籍』과 『建陽1年漢城府北署陽德坊戶籍』에 韓鼎夏와 李龍鎬는 직업이 진사로 표기되어 있다. 그들은 거주지와 성명이 『사마방목』과도 일치했다. 그러나 호적상 4組를 기재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호적에 4조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별도의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소의 호적이 나타난다면, 그 호적에는 아마도 한정하와 이용호의 4조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현존 하는 호적상의 주소지에는 여성 壽命 1인과 남녀 고용인 각각 1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여기에 보이는 여성 壽命은 ‘妾’이었을 것이다. 한정하는 瓦家 10칸과 草家 3칸 총 13

칸의 가옥을, 이용호는 와가·초가 각 5칸 총 10칸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다. 별도 공간에 솟을 두는 경우는 한성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妾戶 등 특수 사례는 일반적 분석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생원·진사 계층의 경제력 규모는 조금 더 상향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1896~1908년간 작성된 3만 여 건의 호적에 보이는 進士戶를 검토하여, 조선말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가호의 2.78%가 가계 내에 사마시 입격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 평균 0.25%의 11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관직자 중 사마시 입격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성부 지역의 사마시 입격 비율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2. 평균 입격 연령은 한성부가 29.5세인데 반해, 경기도 33세, 평안북도 32세, 경상남도 38세, 함경북도 38세, 황해도 50세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것이다.

3. 서울과 지방 입격자의 父의 품계를 살펴보면, 지방은 진사 8명 중 진사 이상의 신분을 갖고 있던 조상이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한성부는 28호의 進士戶 가운데 무려 12호가 진사이거나 品職者였다. 서울과 지방 간 생원·진사호의 가문적 위상에 큰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4. 4祖를 포함하여 호적 전체를 볼 때, 진사는 353인, 생원은 48인이었다. 고종대 생원 대비 진사의 배출 비율은 대략 1.5배 정도였다. 호적상 진사가 생원보다 7.4배가 많았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수치이다. 특히 호주의 직업으로 ‘生員’을 기재한 경우는 全無했다. 조선말 한성부 지역의 진사 선호 현상

을 감안하더라도 當代에 生員戶가 없는 것은 매우 이상했다. 호적 내에 생원 호가 없었던 것은 실제 생원시 입격자가 없었다기보다는 호적 기재상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5. 진사호의 거주지 이동 유형은 ‘지방→서울’이 17건이었고, ‘지방→지방’이 3건이었다. ‘서울→지방’은 1건도 없었다. 생원, 진사층은 입격 후 서울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6. 대체적으로 進士戶는 일반호에 비해 2~3배 정도 큰 가옥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 참고문헌

『經國大典』

『國朝文科榜目』

『司馬榜目』

송준호, 『李朝 生員·進士試의 研究』, 국회도서관, 1970.

최진옥,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집문당, 1998.

김경웅, 『조선조 과거제도 시행과정의 탐색』, 『교육사학연구』 25-1, 2015.

_____, 『四學課試 출신자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분석-1846년 식년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28권 1호, 2018.

김경웅, 『조선후기 경(京)·향(鄕) 유생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비교연구-1846년 식년감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1, 2018.

김의환, 『영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국학연구』 35, 2018.

김의환, 『충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조선시대사학보』 91, 2019.

柳浩錫, 『1931年刊『全州生進靑衿錄』分析』,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43, 2013.

박현순, 『17세기 과거(科擧) 관리의 정비-응시자 증가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사학보』 49, 조선시대사학회, 2009.

원영환, 『朝鮮時代 生員進士와 春川社會의 特性』, 『강원문화사연구』 3, 1998.

원창애, 『지방 거주 생원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趙世煥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39, 2020.

이남희, 『조선시대 수원지역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연구』, 『역사와실학』 51, 2013.

이수환, 『조선 향촌사회 속의 생원·진사』, 『한국사 시민강좌』 46, 2010.

진덕순·이은주, 『조선시대 생원·진사의 방방 복식제도』, 『국학연구』 45, 2021.

최진옥, 『조선시대 평안도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Study on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s of Seoul in 19th Century

–Focusing on the Family Registers During the Late Period of Chosun –

Lee, Jung-joo*

In the Confucian society of Chosun, the gwageo(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ociety. Although the gwageo was divided into liberal arts, military services, baccalaureat and civil services, liberal arts and the baccalaureat, that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pre-exam for liberal arts, were considered particularly important in Chosun. The literary arts exam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the exam to recruit government officials. However, the baccalaureat was also considered important as the literary arts exam since it was the exam to recruit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s. Not many people applied for the literary arts exam because the passing mark was high but the competition rate for the exam to recruit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s was intense at 300~400:1.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passing of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s was the shortcut for not only individual success, but also, an honor for the family name. For such reasons, investigating the substance of Chosun's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s can be considered as a key factor in understanding the ruling power of the Chosun Dynasty.

So far, the studies on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s have stopped at revealing their residence and family background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lassic

* Dankook University

and literary licentiates of Hanseongbu through the family registers of the late Chosun Dynasty to supplement the existing study method. In the family registry of the late period of Chosun, there are records of 35,163 heads of households. There were 401 cases, where the profession for the head of households and their 4 ancestors were listed as ‘classic licentiate’ and ‘literary licentiate’ in the family registry and among the entire family registry, there were 53 classic licentiates, which was approximately 0.15% of the total. Moreover, there were 42 residents of Hanseongbu among the candidates, which was 79% of the country’s total. This implies that Hanseongbu produced approximately 80% of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when the region was only 1/3 of the population.

When expanding to their 4 ancestors instead of focusing on just the heads of households, there was 2.78% of Seoul households that had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in their lineage. This number is 11 times the national average of 0.25% with the exclusion of the Hanseongbu. Furthermore, this number did not include the successful candidates among the officials, and the successful rate of the Hanseongbu region was so high that it could not be compared to any other region. When examining the cases where the fathers wer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provinces were 12.5% and the Hanseongbu region was 35.1%.

The size of homes were examined to reveal the economical status of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of the Hanseongbu and the average size of homes for the successful candidates in the region was 15.3 rooms. Moreover, the average size of homes in regions excluding Hanseongbu was 4.4 rooms. When considering that the households in the Hanseongbu region with successful candidates of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mostly lived in tile-roofed houses and price of land in Hanseongbu was higher than other regions, the economical gap between the

families with successful candidates in Hanseongbu and a normal families living in provinces widened further apart.

Among the candidates of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in the family registry, there were 353 literary licentiates and 48 classic licentiates. The discharge rate of literary licentiates was 1.5 times that of classic licentiates during King Gojong's reign. On the family register, the number of literary licentiates was 7.4 times that of classic licentiates and this was a very unique number. The cases that listed classic licentiate as the profession for the head of the households were particularly nonexistent. This was due to the custom where successful candidates of classic licentiate examination were called as literary licentiate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Key words : classic licentiates(生員), literary licentiates(進士), the candidates of the classic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司馬試)